

전남도, 구글과 함께 관광 활성화 '맞손'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 구글 본사와 업무협약 체결 관광산업 진흥·지역 기업 육성 단계별 협력사업 추진

전남도가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과 전남 관광 홍보·활성화, 지역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22일 도청에서 구글과 전남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스타트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했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 협약서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이 서명했으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 개발해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글 지도에 업체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연락처, 사용자 리뷰 등 구글 지도에 등록된 정보는 전 세계 구글 사용자들에게 70여개 언어로 번역돼 표출된다.

이를 통해 전남에 방문하는 해외 사용자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숙소, 맛집 정보 등을 현지 언어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업체는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 협력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창업 관련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구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방안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2단계 협력사업으로는 전남의 관광·문화·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에 전남의 관광 명소를 표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전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와 10억명 이상의 사용자, 7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는 구글 지도 등 구글의 디지털 도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남의 훌륭한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많은 이들이 경험하

게 될 것"이라며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사용자에게 손쉽게 도달하고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보물과 같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남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지원과 구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과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시행 2년차' 고향사랑기부제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기여"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지역 등 소외 지역의 재정 여건을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4억7천만원으로 비(非)인구감소 지역(137개) 모금액(2억7천만원)의 1.7배 수준에 달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4억5천만원으로 수도권 지역 지자체 평균 모금액(1억4천만원)의 3.3배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5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4억1천만원으로 전년 3억4천만원 대비 20.3% 증가했다.

행안부는 기부금의 30%를 현금과 같은 포인트로 돌려주면서 기부자의 답

게 지정기부 사업이 발굴됐다. 이를 통해 약 40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해남군의 '소아과 지원사업', 광주 동구의 'E.T 야구단 사업' 등 특색 사업들이 공감을 얻으며 모금에서도 결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를 겪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정기부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참가가 있었던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12월30~31일 전년 모금액(약 5억원)의 2배가 넘는 11억원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담지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기부금을 피해 가족 지원 사업 등 재난 극복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879억3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정기부제'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주목 광역 1위 전남...기초 2·3위 광주·담양군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0억6천만원)보다 28% 증가했고 레퍼 구매가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답례품 유행도 기존 특산물 중심에서 텃밭 분양, 관광·체험 상품 등으로 확대해 '생활인구' 증가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다만, 지역 토산품이나 소상공인의 제품보다는 유명 제과업체 상품권이 가장 많이 팔린 답례품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정기부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지정기부제는 지자체가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 모금을 개시하면 기부자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기부 효능감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지정기부제 시행 이후 모두 55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0억6천만원)보다 28% 증가했고 레퍼 구매가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모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전남(187억5천만원)이었다. 이어 경북(103억9천만원), 전북(93.2억), 경남(75.9억), 강원(69.9억), 충남(63.5억), 경기(53.6억), 광주(45.3억), 충북(42.7억) 순이었다.

22개 시·군·구 중 184곳에서 전년보다 모금액이 증가했다. 180개 시·군·구에서는 기부 건수가 늘었다.

상위 10개 지자체 중 제주가 35억9천300(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광주 동구(23억9천500만원), 3위는 전년 1위였던 담양군(23억200만원)이다. /김진수 기자

김지사, 전통시장 찾아 지역 경제·민심 챙기기

김영록 전남지사는 설을 앞두고 22일부터 사흘간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여수 수산시장, 목포 자유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어려운 지역 경제와 민심을 살피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보기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정남진장흥도요시장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최근 국내 경제·금융·정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어 시장 상인 등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전통시장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번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설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은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상인 모두가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폭염·장마에 이어 올해 대설·강풍 등 이상 기후로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들께서 품질 높은 상품의 적정가격 판매에 힘쓰고, 도민들께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설을 앞두고 물가 정점을 위해 22일 정남진장흥도요시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더 드려요"

광주시, '청년13(일+살)통장' 참여자 620명 모집

광주시가 오는 2월3일까지 일(1)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살)통장' 10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지난해 9기(610명)보다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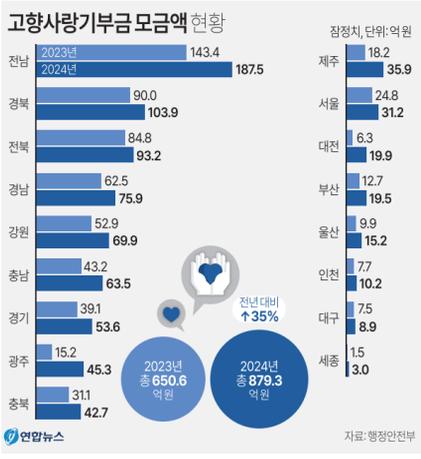
이 사업은 19·30세(1985년 1월2일~2006년 1월1일 출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 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청년 금융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 청년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근로해야 하며 본인 세금 포함 월 소득이 88만5천444~287만416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희망 청년은 2월3일까지 청년13(일+살)통장 누리집(<https://www.13accoun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서류 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2월10일 추첨한다.

/변은진 기자



소중한 분께 정성을 가득 담아 행복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명절, 결혼식 등 특별한 날 귀한 분들께 폐백 음식 등 선물용 답례품으로 김부각을 선물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프리미엄 수제 부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박진수부각 명절 선물세트 ·

박진수부각 선물세트

선물세트(소): 3팩 ... 16,000원
4팩 ... 20,000원

선물세트(중): 5팩 ... 24,000원
6팩 ... 28,000원
7팩 ... 33,000원

선물세트(대): 10팩 ... 47,000원

* 찹쌀김부각 / 찹쌀다시마부각 / 찹쌀카레김부각 선택 가능

* 배송비 3,000원 별도

박진수부각
PARKJINSOO BUGAK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92번길 119-19

TEL. 062-941-8511 / 010-3602-6623

N 박진수부각